

책은 총 3개의 부분으로 나뉜다. 1부는 세속주의의 기독교 비판에 대한 변론, 2부는 기독교와 세속주의의 대비를 통한 기독교 변증, 마지막 3부는 간략한 정리와 저자의 기독교 신앙 증거이다. 먼저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기독교를 몰아세우는 비기독교 진영의 범주를 세속주의(세속주의자)로 설정하고 정의한다.

저자가 정의한 세속주의는 무엇인가? 저자는 세속주의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 너머, 초자연적인 세계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향으로 정의한다. 이것에 속한 이들은 세상의 모든 일이 과학의 범주 안에서 다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들은 영원이라는 개념을 두지 않는다. 그렇기에 현재의 영역에만 모든 의미를 둔다. 이런 이들을 가리켜 흔히 현세주의자라고 말하기도 한다.

책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세속주의(세속주의자)는 위의 의미들을 담고 있다. 저자는 세속주의자들을 불러 모은 뒤, 대화의 자리에 앉힌다. 그리고 1부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1부 (1장,2장)

1장에서 저자는 종교,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 오류라고 말한다. 교육이 발전하고, 사람의 지성이 진보할수록 종교는 퇴보할 것이라는 세상의 추측은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 수준이 높아져도, 세속 이성이 과거보다 훨씬 진보한 사회가 도래했어도, 사람들은 신앙의 영역을 이탈하지 않는다. 오히려 신앙으로 회귀한다." (22-23)

사람들은 왜 다시 교회로 들어오는가? 더 교육 받고, 더 지식을 갖추고, 더 발전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왜 다시 신앙의 영역을 찾는가? 이에 대해 저자는 '이성의 한계 자각'이라는 말을 꺼내며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를 언급한다. (25)

이성의 최우위성을 가장 먼저 끌어 내린 저자는 감정과 직관, 경험의 영역에서 종교의 정당성을 호소한다. 이성이 감정이나 직관, 경험보다 우위에 위치한 것이 아니니, 체험이나 직관의 자리에서 가지게 된 종교가 이성에게 무자비하게 비난 받는 것이 오히려 부당할 수 있다. 저자는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1장의 중반부와 후반부에서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2장에서 저자는 세속주의의 본질은 신앙이며 세속주의와 종교의 대립은 신앙과 또 다른 신앙의 대립임을 논증한다. 종교를 비판하는 세속주의는 종교와는 다르게 합리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것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무장하며, 충분한 이성과 증거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객관성, 중립성이라는 글자를 소유한 것으로 여기어 진다. 그러나 저자는 그러한 세속주의의 목소리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세속주의의 바탕에도 고유한 믿음이 있음을 지적한다.

저자는 세속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기초, 즉 '종교와 신은 증명할 수 없으나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입증 할 수 있다'는 주장이 허구라고 말한다. 그것은 이성을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일 뿐이다. 저자는 하버마스의 말을 빌려 '도덕상' 믿어도 되는 내용은 실험실에서 입증 가능한 것 뿐임을 밝힌다. (p53) 즉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교와 종교를 믿는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논리는 부당하다. 단순히 입증의 여부만을 놓고 이야기 한다면, 종교 외에도 사람들이 지닌 다양한 신념 역시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만일 종교를 제외한 나머지의 신념과 가치에 증명의 칼날을 들이대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면, 입증이 불가능해도 그러한 신념과 가치들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종교 역시 같은 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2부 (3장~10장)

3장. "삶의 의미는 존재하는가?"

사람의 삶에 참된 의미는 과연 존재하는가? 저자는 삶의 의미를 놓고 세속주의의 관점과 기독교의 관점을 비교하며 논의를 시작한다. 그는 앞서 밝힌 이성의 한계를 다시금 지적하며, 본래부터 인간의 삶에 의미가 없었다는 세속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한다. 삶의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이들은 "인간이 참된 자유를 맛보려면 오히려 삶의 의미에 집착하는 행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우주적 관점 앞에 놓인 개개인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이야기 한다. 그리고 저 무기력함 속에 의미를 집착하여 스스로를 한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보다, 집착을 그치는 것이 오히려 참된 해방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보편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끌어와 반박한다. 일상적이고 단조로운 그들의 평범한 삶 속에 속속히 드러나는 사랑하는 이를 위한 희생, 용기,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놓는 일들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다. 이러한 논박을 통해, 저자는 인간에게 있어 삶의 의미란 존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유도한다.

저자는 삶의 의미는 분명히 존재하며, 다만 해결되어야 할 의문은 그 의미의 출발이 어디인지 아는 것에 있다고 말한다. 의미란 개인이 만들어 내는 것인가? 아니면 발견하는 것인가? 저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부여할 완전한 자유가 없다. 다만 삶의 의미는 발견되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이란 삶의 모든 영역에 의미를 부여할 만큼 세상의 모든 법칙 앞에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삶의 의미를 부여할 능력이 없다. 다만 우리는 삶의 의미를 오늘의 현장에서 발견하는 사람들이다." (95)

4장. "사람은 만족을 얻을 수 있는가?"

3장이 삶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면, 4장에서는 삶의 만족에 대해 논의한다. 저자는 삶의 만족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과 만족이 존재한다는 두 가지 범주를 언급한다. 결과적으로 삶의 만족은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저자는 이 불행한 현실을 지적한다.

우리는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 저자는 그것이 사랑의 순서가 어긋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어거스틴의 입장을 인용한다. 그는 인간이 불만족스러운 근본적인 원인은 가장 중요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최고로 사랑하지 않음에 있다고 말한다. (129) "다른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신을 해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불만족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저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만족을 얻고자 우리의 시야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한 애착은 불안이나 원망, 극단적으로는 폭력까지 부른다. 또한 만족을 부정하며, 초연하고자 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 그것은 삶의 기쁨의 원천을 상실시키는 태도이다.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적게 사랑한 것이 불만족의 원인이다. 무엇이든 더 적게 사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만족은 거기에 있다."

5장. "가장 탁월한 자유는 제한을 통해 주어진다."

5장에서 저자는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이야기하는 세속주의의 관점을 비판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하며, 무한한 자유를 최고의 선으로 여긴다. 사람이 제약 없는 자유를 희망하는 것은 마땅하다." 세속주의의 이런 주장을 저자는 현실의 삶을 제시하며 반박한다.

저자는 사람에게 있는 자유가 단수가 아닌 복수라고 말한다. (147) 복수의 자유는 일상에서 반드시 충돌한다. 자유롭게 하고 싶은 하나가 있으면, 그와 반대되는 또 다른 자유 하나를 버려야 한다. 결국 참된 자유는 다른 자유를 잃어버림으로 얻을 수 있다. 세속주의가 말하는 제약이 없는 자유는 허상이다. 오히려 진짜 자유는 특정한 제약을 선택함으로써 주어진다.

이어서 그는 사람이 모든 것에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임을 밝힌다. 인간은 자유를 추구하며, 자유 상태를 희망하지만, 사실은 각자의 삶마다 실존하는 필연적 한계에 놓여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저자는 사람이 만약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커다란 자유만을 추구한다면 오히려 자유를 잃게 됨을 경고한다. (153)

결국 자유의 문제란 지배의 문제이다. 우리를 지배하는 주체는 무엇인가? 그 지배의 대상을 무엇으로 두느냐에 따라, 어떤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저자는 지배 받는 일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떤 대상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 가장 탁월한 선택인지를 묻는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그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소개하며, 제약이 따르는 자유의 가장 탁월한 제약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밝힌다. (165)

6장. "우리가 가진 정체성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6장에서 저자는 정체성과 자기 사랑을 연관 지어 언급한다. 저자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물음 앞에, 세속주의는 잘못된 답변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고대에는 개인의 정체성이 외부와 사회, 혹은 부족이나 민족으로부터 형성되었지만, 현재 서구사회의 정체성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어떻게 인정하는지가 전부이다." (170)

과거 시대가 규정한 정체성이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저자가 외부의 기준 없이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짓는 정체성은 옳지 않으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저자는 정체성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외부 세계의 기준이 필요함을 이야기한다.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밖에서 이야기 해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결국 정체성은 단순히 개인의 내적 갈망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외부의 관계와 긴밀히 연결됨으로 정체성이 형성된다. 저자는 세속주의의 왜곡된 정체성 정의가 과연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지를 의심하며, 그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다. (184)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정체성과 자아에 대한 저자의 논증은 7장으로 이어진다.

7장. "건강한 정체성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저자는 7장에서 세속주의의 왜곡된 정체성을 지적한다. 그리고 개인을 규정하는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저자는 개인의 자아가 시작하는 토대 세 가지 견해를 언급한다. 첫째는 그것이 밖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입장이다.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자아를 찾곤 한다. 둘째는 자아란 안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의견이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6장의 내용과 같은 비판을 받는다. 외부 세계의 규칙 앞에 자유로워 보이지만, 오히려 자존감과 정체성의 지속적인 존속을 위해 발버둥 쳐야한다. 역설적으로 외부세계의 변화 앞에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근원을 위로부터 보는 시각이다. 저자는 이 세 번째 견해를 중심으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한다. (191)

저자가 정체성에 관해 말하는 요지는 이것이다. 정체성을 존립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전제는 자신이 사랑하는 이의 사랑이다. 인간의 자아는 자신이 칭찬 하는 이의 칭찬을 통해,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의 신뢰를 통해 건강하게 형성된다. 그러나 정체성과 자아를 지닌 나와 상대방은 항상 변덕스럽다. 서로 변덕스러운 사람들이 서로의 정체성의 근거가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비극을 부른다. 하지만 그러한 정체성의 기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면? 한결같이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라면? 저자는 바로 이러한 전제로 사람이 지닐 수 있는 최고의 정체성은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기독교의 가치를 근거로 제시하며 이야기한다. (194)

8장. "희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기독교" (죽음의 문제조차)

저자는 현대에 존재하는 다양한 절망들을 언급한다. "이 절망들을 극복하고 희망을 발견하는 일이 필요한가?" 저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함으로써 희망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미래에 대한 신념이 현재를 경험하는 방식을 완전히 지배한다." (219) 저자는 과거 세속주의가 제안했던 희망을 언급한다. 그리고 희망을 담보했던 세속주의의 낙관이 어떻게 빛나갔는지 밝힌다. 세속주의의 희망 제시가 실패로 드러난 이야기를 한 뒤 저자는 절망의 궁극적인 실체인 죽음을 언급하며 기독교의 가치를 변증한다. "죽음에 대해 세속주의의 어떤 관점들도 명료한 희망적 방안을 제공해 주지 못했다. 하지만 죽음의 문제에 대해 기독교는 그 어떤 세속주의의 관점보다 확실한 희망적 대답을 제시한다. 죽음을 넘어선 기독교의 희망은 죽음이 존재하는 오늘의 영역에서 세속주의가 보일 수 없는 희망의 행위들을 선보인다."

이러한 기독교의 방향성에 대해 세속주의는 또 다른 공격을 가한다. 그것은 죽음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것이다. 세속주의는 죽음에 대해 이같이 말한다. "죽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죽음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형상이며, 겁낼 이유가 전혀 없다." (228)

세속주의의 입장에 대해 저자는 진실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무의미하며, 인간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이루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한다. 그리고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그것에 영향을 받는 이유를 논증한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궁극적인 절망,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희망을 지니도록 하는가? 저자는 그것의 근거가 되는 기독교의 가치를 설명한다. 특별히 저자는 이 가치의 중심에 있는 예수그리스도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독교의 희망은 구체적이며 인격적이다. 또한 이것은 가장 확실하며, 상상을 넘어 실제로 존재하는 놀라운 희망이다." (238-250)

9장. "인간의 도덕 기준을 담보하는 기독교"

9장에서 저자는 사람에게 공통으로 존재하는 도덕 기준을 근거로 기독교 변증을 시도한다. 개인을 넘어 서로가 동의할 수 있는 선악의 기준, 일반적인 도덕률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가? 저자의 말에 의하면 세속주의의 전제에서는 결코 도덕의 근원을 찾을 수 없다. 자아의 선택이 가장 견고한 기준이 되는 세속주의 관점에서는 나의 결정이 타인의 결정보다 우세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254) 이러한 상황에서 세속주의 진영은 선악의 기준의 근원에 대해 두 가지 양상을 보인다. 하나는 남의 도덕은 사회적 구성물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신의 도덕은 그러한 구성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태도이다. (258) 다른 하나는, 본래 도덕에 대한 판단은 나무가 나무이듯이 자연스럽게 지니고 있다는 견해이다. (270)

저자는 이러한 세속주의의 입장을 반대한다. 그는 인간의 존재 목적을 알게 될 때 선악의 기준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나아가 도덕 기준을 지키고 준수하는 의무와 책임은 인격적 관계 안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결국 그 관계의 중심에는 반드시 절대적 인격체-신-가 필요하다. (271)

10장. "사회의 정의를 담보하는 기독교"

저자는 정의를 추구할 수 있는 근거 역시 기독교에 있다고 말한다. 이에 앞서, 종교 안에서 일어난 불의한 일들에 대해 저자는 변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도, 단순히 기독교인의 선행과 악행만을 가지고 신앙과 정의의 관계를 살피긴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278) 대신에 저자는 인권의 기초가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근거로 논의를 시작한다.

인권의 기초는 어디에 있는가? 세속주의자는 사람들이 모든 영역에서 무지한 상태로 사회를 구성해도, 합리적 사익을 추구만으로 그 사회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로 출현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도덕 가치나 신앙은 단순히 사생활의 영역으로 존재할 뿐이다. 저자는 이에 대해 "모든 정의 개념에는 어쩔 수 없이 가치 판단이 개입된다."는 마이클 샌델의 말을 인용하며 반박한다.

저자는 인권 개념의 가장 탄탄한 기초가 성경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마틴 루터 킹의 정의 사회 추구를 예시로 제시한다. "인종의 구분을 넘어 사람이 동등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창세기의 선언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정의의 기초이다." (284)

나아가 저자는 개인의 이성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합리성은 결코 모든 사람을 희생적으로 사랑하라는 명령 실행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함을 지적한다. 합리적이라는 말은 합리적이지만 못한 희생을 지시할 수 없다. 무한한 윤리적 요구를 인지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세속관점에 따른 가치가 아니다. 오히려 절대 진리, 우주의 초월적 차원이 필요하다. 이것을 담보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다. 저자는 "사회가 어떻게 더 정의를 향하여 진보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정의로운 사회를 형성하는 발걸음임을 밝힌다.

3부 (11-12장)

11장-12장. "결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것"

11장과 12장은 앞서 언급된 내용을 근거로 기독교 신앙의 정당성을 옹호한다. 저자는 앞서 언급했던 각 장의 내용들을 재확인하며, 기독교 신앙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한다. 세속사회의 예측과 달리 종교는 쇠퇴하지 않았다. 오히려 성장하고 있다. 또한 이성을 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며, 신앙을 지니는 행위는 맹목적이라는 전제는 부당하다. 이성이 모든 것의 최고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이성을 포함한 인간이 지닌 다양한 영역에서 참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길은 세속주의가 주장하는 가치들을 넘어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 믿음의 행위가 아니다. 믿지 않는 것 역시 (앞서 논의한 대로) 믿음의 행위이다. 저자는 이러한 믿음을 이야기 한 뒤, 하나님의 존재를 추론하는 일에 우주의 경이로움을 가장 확실한 논거로 이야기 한다. (310) 나아가 그는 세상에 존재하는 만들어진 것들을 직관적으로 인지해 볼 것을 주장한다.

이어서 저자는 복음서의 역사성을 언급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한 각도에서 소개한다. 단순히 종교적 메시아 예수를 넘어, 시대가 흡모할 수 있는 인격을 지니신 율통성 있는 최고의 자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332) 예수가 누구인지 이해하고 판단하는 몇 가지 설명들을 언급한다. 그리고 그 중 가장 설득력 있는 입장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입장임을 밝힌다. (345)